

<韓半島先進化財團> 青年學포럼(2016년 9월23일) 林東錫(建國大 名譽教授)

“중국고전을 통해 본 청년의 의미와 역경극복”



(林東錫)

“인생난득(人生難得)”

“수처작주(隨處作主)”

목차

- | |
|----------------------------|
| I. 靑年, 그 混沌의 過程 |
| II. 중국 고전 속의 缺如와 극복 |
| III. 《明心寶鑑》의 실체와 청년 缺如의 극복 |
| IV. 結言 |

I. 青年, 그 混沌의 過程

<1> 《禮記》 曲禮篇

“人生十年曰幼，學。二十曰弱，冠。三十曰壯，有室。四十曰強，而仕。五十曰艾，服官政。六十曰耆，指使。七十曰老，而傳。八十九十曰耄。七年曰悼，悼與耄，雖有罪，不加刑焉。百年曰期，頤。”

(사람이 태어나 열 살을 幼라 하며 배움을 시작한다. 스무 살을 弱이라 하며 관례를 치른다. 서른을 壯이라 하며 가정을 꾸린다. 마흔을 強이라 하며 벼슬을 한다. 쉰을 艾라 하며 官政에 服務한다. 예순을 耆라 하며 지시하고 시킬 수 있는 나이이다. 일흔을 老라 하며 모든 것을 전해준다(물려준다). 여든, 아흔을 耄라 한다. 일곱 살을 悼라 하며 悼와 耄는 비로 죄를 지어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백 살을 期라 하며 봉양을 받는다.)

<2> 《論語》 爲政篇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공자왈: “나는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바르게 섰으며, 마흔에 미혹하지 않았고, 쉰에 천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예순에 귀로 들으면 순하게 깨닫게 되었고, 일흔에 하고 싶은 바대로 하여도 법규에 넘어섬이 없었다.”)

<2> 冠禮와 笄禮

“三月取名，冠年有字”에 따라 남자(20) 冠禮: 여자(15) 笄禮):

名→字: 成人이 됨을 公認함과 아울러 모든 의무와 책임, 독립성과 자립의 요구. 道德과 交遊, 和合과 公衆 重視. 從에서 橫(平)으로 轉換하는 시기.

字는 相補的 의미를 부여함. 韓愈(退之), 蘇軾(子瞻), 李滉(景浩), 栗谷(叔獻), 李舜臣(汝諧), 顏回(子淵), 端木賜(子貢), 仲由(子路) 冉求(子有). 孔丘(仲尼) 등

<3> 自立과 求學(미래를 위해)

“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禮記》 學記)

“春華秋實”→“夫學者猶種樹也，春玩其華，秋登其實，講論文章，春華也，脩身利行，秋實也。”

(무릇 배움이란 나무 심는 것과 같으니 봄에는 그 꽃을 즐기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문장을 강론하는 것이 봄꽃이요, 자신을 수양하여 행동에 이롭게 함이 가을 열매이다.)(《顏氏家訓》 勉學篇)

“幼而學者，如日出之光，老而學者，如秉燭夜行，猶賢乎瞑目而無見者也。”

(어려서 배우는 것은 마치 해가 났을 때의 빛과 같으나, 늙어서 배우는 것은 마치 촛불을 잡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해도 까막눈에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顏氏家訓》 勉學篇)

<4> 현대의 성년(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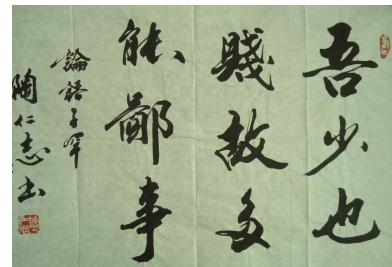
三抛, 五抛, 七抛, 니트족, 흙수저 …… 등으로 표현되는 혼돈과 고통이 엄중한 시대. 사회와 국가,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焦眉의 문제.

Ⅱ. 중국 고전 속의 缺如와 극복

<1> 결여(缺如), 그 엄청난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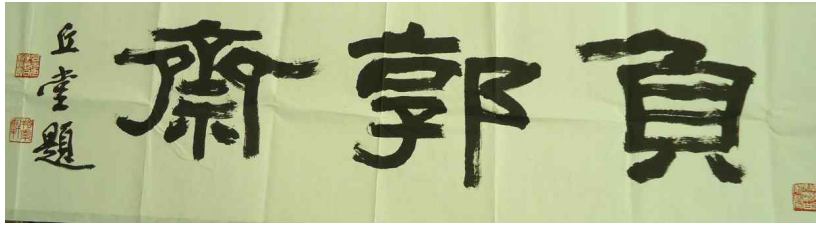
<2> 공자의 缺如觀

○大宰問於子貢曰：「夫子聖者與？何其多能也？」
子貢曰：「固天縱之將聖，又多能也。」子聞之，曰：
「大宰知我乎！吾少也賤，故多能鄙事。君子多乎哉？不多也。」(《論語》 子罕篇)



<3> 소진(蘇秦)과 부곽전(負郭田)

“使我有洛陽負郭田二頃，吾焉能佩六國之相印乎？”(《戰國策》，《史記》)



<4> 이사(李斯)와 변소의 쥐

“李斯者，楚上蔡人也。年少時，爲郡小吏，見吏舍廁中鼠食不絜，近人犬，數驚恐之。斯入倉，觀倉中鼠，食積粟，居大廡之下，不見人犬之憂。”

<5> 공자(孔子)의 자녀 교육관

○ 愛之，能勿勞乎？

○ 庭敎：陳亢問於伯魚曰：「子亦有異聞乎？」對曰：「未也。嘗獨立，鯉趨而過庭。曰：『學詩乎？』對曰：『未也。』『不學詩，無以言。』鯉退而學詩。他日，又獨立，鯉趨而過庭。曰：『學禮乎？』對曰：『未也。』『不學禮，無以立。』鯉退而學禮。聞斯二者。」陳亢退而喜曰：「問一得三，聞詩，聞禮，又聞君子之遠其子也。」

<6> 맹자(孟子)의 결여관(缺如觀)

『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曾益其所不能。』(《孟子》 告子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림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心志)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 근골(筋骨)을 노고롭게 하며, 그 체부(體膚)를 주리게 하며, 그 몸을 공핍(空乏)하게 하며, 실행함에 그 하는 바를 불란(拂亂)하게 한다. 그 까닭은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바를 더해 보익(補益)시키기 위해서이니라.)

<7> 한비(韓非子)의 결여

“韓非者，韓之諸公子也。喜刑名法術之學，而其歸本於黃老。非爲人口吃，不能道說，而善著書。與李斯俱事荀卿，斯自以爲不如非。”

(韓非는 韓나라 公子 중 한 사람으로 刑名.法術의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역

시 그 근본의 결론은 黃老의 학문에 있었다. 한비는 날 때부터 말더듬이로서 말솜씨는 뛰어나지 못하였으나 저술에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다. 李斯와 함께 荀卿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재주에 있어서는 이사도 한비에게 미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였다.)

<8> 伊尹과 百里奚

伊尹爲庖，百里奚爲虜，皆所由于其上也。故此二子者，皆聖人也，猶不能無役身而涉世如此其汙也，則非能仕之所說也。

(殷나라 湯王의 재상 伊尹은 일찍이 하찮은 요리사였고, 秦穆公의 재상 百里奚는 포로였으나 그런 것은 모두가 군주에게 임용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두 사람 다 성인이면서도 그렇게도 몸을 수고롭게 하고 천한 일을 겪은 후에 세상에 빛을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재능 있는 인재라도 그런 수고로운 일을 거론할 것이 못된다.)

<9> 범려(范蠡)와 둘째 아들

월(越)나라: 句踐, 范蠡, 文種 ↔ 오(吳)나라: 伍子胥, 太宰 伯嚭

→오월동주(吳越同舟), 와신상담(臥薪嘗膽)

○범려: 치이자피(鴟夷子皮)→도주공(陶朱公)→둘째 아들

<10> 戰國四公子: 孟嘗君(齊), 平原君(趙), 信陵君(魏), 春申君(楚)

<11>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저술

이릉(李陵) 변호, 궁형(宮刑).

“太史公遭李陵之禍，幽於縲紲。乃喟然而曰：「是余之罪也夫！是余之罪也夫！身毀不用矣。」退而深惟曰：「夫詩書隱約者，欲遂其志之思也。昔西伯拘羑里，演周易；孔子居陳蔡作春秋；屈原放逐，著離騷；左丘失明，厥有國語；孫子膺脚，而論兵法；不韋遷蜀，世傳呂覽；韓非囚秦，說難孤憤；詩三百篇，大抵賢聖發憤之所爲作也。此人皆意有所鬱結，不得通其道也，故述往事，思來者。」於是卒述陶唐以來，至于麟止，自黃帝始。”

(나 태사공 사마천은 이릉(李陵)의 화(禍)를 입고 옥에 갇히게 되자 이렇게 깊이 탄식하였다.

“이것은 나의 죄일까! 이것은 나의 죄일까! 이제 내 몸은 망가졌으니 쓸모없이 되었구나.”

그리고 물려 나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릇 《시》, 《서》의 뜻이 은미(隱微)하고 말이 간략한 것은 그 마음이 뜻하는 바를 이룩하려 하기 때문이다. 옛날 서백(西伯)은 은나라 주왕에 의해 유리(萇里)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역》을 풀이하였고, 공자는 진(陳).채(蔡)나라 사이에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춘추》를 지었으며, 초나라 굴원(屈原)은 쫓겨나 귀양살이를 함으로써 《이소(離騷)》를 지었고, 좌구명(左丘明)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국어(國語)》를 남겼으며, 손자(孫子)는 다리의 무릎을 잘림으로써 《병법(兵法)》을 논하였고, 여불위(呂不韋)는 축으로 쫓겨난 뒤 세상에 《여람(呂覽)》이 전해지게 되었으며, 한비(韓非)는 진(秦)나라에서 갇힌 몸이 되어 <세난(說難)>, <고분(孤憤)> 두 편을 남겼으며 또, 《시》 3백 편은 대체로 현인과 성인의 의기가 복받쳐 지은 것이다. 결국 사람은 모두 마음 속에 울분이 맺힌 바가 있어, 그것을 발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며 장차 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도당(陶唐)으로부터 인지(麟止)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여 마쳤다. 그 기록은 황제(黃帝)에서 시작된다.)

<12> 한신(韓信)과 유방(劉邦)

漂母의 식사 한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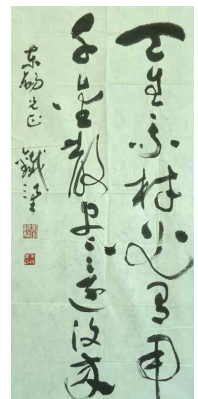
<13> 기타 인물들

좌구명(左丘明)과 《국어》, 장량(張良)과 ‘商山四皓’

<14> 이태백의 시

“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盡還復來。”(하늘이 나의 재능을 내렸을 때에는 반드시 쓸모가 있었을 것이니, ……) <將進酒>

“鳳饑不啄粟”(봉황새는 굶어죽을지언정 좁쌀은 쪼지 않는다.) <古風詩>



<15> 기타 處世觀, 人生觀, 成就觀

○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仁以爲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論語》 泰伯篇)

○“惜福”《帝鑑圖說》

○拾穗雖利，不如躬耕

○不經一事，不長一智.

○三折肱而成良醫，持久病而自名醫.

- 芝蘭生於深林，不以無人以不芳.
- 不求備於人.
- 與人不求備，檢身若不及.
- 不得春風花不開，花開又被風吹落.
- 歷千劫而不古.
- 天下有三危：少德而多寵，才下而位高，無功而厚祿也.
- 樸素而天下莫能與之爭美.
- 目短於自見，故以明鏡觀面；智短於自知，故以道正己.
- 千年田地五百主，田是主人人是客. 勿爲子女役牛馬，子孫自有子孫福.
- 詩書不爲稻粱謀，胸中詩書氣自華.
- 歲不寒無以知松柏，事不難無以知君子.
- 開花不擇貧家地，日照山河到處明.
- 世間海水知深淺，惟有人心難寸量.
- 一人得道，鷄犬皆昇.
- 虎尾春冰寄此身，但持守正是前程.
- 松柏益勁於歲寒.
- 蟠根錯節，乃見利器.
- 積德逸心曰休.
- 守柔曰強. 上善若水

Ⅲ. ≪明心寶鑑≫의 실체와 청년 缺如의 극복

- 유태인에게 『탈무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명심보감』이 있었다.
-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명심보감』 고려말 추적(秋適) 편찬설”의 오해와 진실!
- 원래 중국인(范立本)이 쓴 책에 우리가 옷을 입혀 세계적인 책으로 격상시킨 『명심보감』!
- 그런데 중국에는 『명심보감』이 없다. 이유는?
- 한국에서는 왜 『명심보감』을 재편집하여 오늘날까지 읽혀오고 있는가?
-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최고의 인문, 철학, 처세, 수양서이며 일본, 월남을 거쳐 ‘서양에서 최초로 번역된 동양서’라는 珍記錄을 가진 『명심보감』.
- 우리나라에는 낙질 1본만 전하는 최초 淸州板本, 일본에 온전히 전하는 이유.

○최초 간행 청주판 원본의 기구한 역정. 임진왜란 때 일본 약탈을 거쳐 스페인 선교사 손을 통해 유럽으로, 다시 유럽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동양서.

○이제 『명심보감』에 대해 일본과 유럽, 중국에게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명심보감』 800가지 명언. 지금 ‘철포세대’, ‘흙수저’, ‘인구론’, ‘니트족’이라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진정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텍스트. 오히려 이때가 기회요, 찬스라는 희망의 벅찬 꿈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내 인생 ‘개천에 용이 난’ 나의 이력서에 나중에 써넣자! “이 책의 한 구절이 이 내 인생을 바꾸었노라!”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자가 알려주어야 한다!

<1> 《명심보감(明心寶鑑)》 편찬자는 범립본(范立本)

편자 范立本은 서문 말미의 武林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음. 원말 송초의 독서인, 지식인, 교육자였을 정도일 것으로 추측됨. ‘武林’은 지금의 浙江省 항주(杭州)를 가리키며, 남송(1127-1279) 때 임안부(臨安府)라 불리던 수도였고, 학문의 금지를 그대로 지닌 채 지식인이 모여 살던 변화한 고도임. ‘洪武 26년’(1393)은 漢族이 蒙古族 원(元)으로 몰아내고 남쪽을 근거지로 하여 지금의 南京을 수도로 정한 명(明)의 첫 황제 주원장(朱元璋. 1368-1398년 재위)의 첫 연호인 동시에 건국 후 26년째. 조선 건국 이듬해(太祖 2년).

<2> 한국에서의 《명심보감》

1. 청주판 <초간본>

○원책은 중국에서 洪武 26년(1393). 조선 太祖 2년. 62년 뒤 1454년(端宗 2년, 景泰 5년)에 이미 大字 복각본이 나옴. 거기에 범립본 서문 및 淸州板 유득화(庾得和)의 발문, 간기 등이 실려 있음. “중국본(唐本)을 충청감사 민상국(閔相國, 閔騫)이 널리 보급시키려고 판각을 시켜 한 달이 안 되어 그 사업을 마쳤으며”(此書, 但有唐本, 監司閔相國, 思欲廣布, 鳩工鋟梓, 不有而功訖) 경태(景泰, 明 代宗) 5년(1454 즉 단종 2년) 11월 초하루 출간함.

○출판 작업에 참여한 인명: 청주목사(淸州牧使) 황보공(皇甫恭), 도사(都使) 김효급(金孝給), 목판관(牧判官) 구인문(具人文), 그리고 충청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민건(閔騫) 등. 그 뒤 배본이 순조롭지 못한 채 잊혀져감.

○1972년 한국에서 발견, 그러나 8장 낙장의 불완전본.

○그로부터 140년 뒤 壬亂 때 일본에 의해 약탈당하여 지금 츠쿠바(筑坡) 대학에 살아 있음. 코보에 의해 멀리 스페인어로 번역.

○<초락본> 중에 간기가 있는 것, 현존 가장 오래된 담양본潭陽本의 율곡栗谷 서문이 가정嘉靖 경술庚戌(1,550)년인 점으로 보면 복간본(청주판) 다음 <초락본>이 나오기까지 96년이 걸렸음.

2. <초락본>(통행본, 통속본)

일본의 3분의 1로 줄어듦.

①배불숭유(排佛崇儒)에 의해 佛家の 어록이 삭제

②다음으로 내용이 확실치 않은 문장이 일부 제거됨.

③백화체 문장이 삭제.

<초락본>이면서도 <담양본>, <갑진본>, <정축본> 등에 출입이 보임.

원본 「存信篇」의 경우 겨우 7장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 모두 탈락. “명심보감 19편”이라 함.

○<초락본>은 청주판 초간본이 있었던 것을 모른 채 서문: 율곡 이이(1536-1584), 신좌모(申佐模), 이휘재(李暉載, 1795-1875), 김해부사 성재(性齋) 허부(許傳, 1797-1886),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 가림(嘉林) 조기승(趙基升), 계당(溪堂) 류주목(柳疇睦), 그리고 추적의 20대 후손 추세문(秋世文), 심규택(沈奎澤)의 발문, 손진수(孫晉琇), 서찬규(徐贊奎, 1825-1905) 등

○추가: 「증보편(增補篇)」, 「팔반가편(八反歌篇)」(《桂宮誌》), 「효행편속(孝行篇續)」,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

3. 추적(秋適) 편찬설

고려 말 문인 露堂 추적(1246 ~ 1317).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초락본)라 하였으나 19세기 말엽에 ‘초(抄)’자가 사라짐. 이유는 1860년대에 대구 지방에 살던 추적 후손 추세문(秋世文)이 세보가전(世譜家傳)과 함께 김포부사(金浦府使) 허부(許傳)에게 序文을 부탁. 자신의 20대 선조 고려 노당(露堂) 추적(秋適)의 작으로 추인해 줄 것을 부탁(高宗 6년, 1869년) “固辭而固請, 嘉其追遠邀誠 謹按其家乘而序之” 사양하다가 써줌.

○그리하여 “노당선생이 후학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지은 책으로 오직 이 책이 남아 있을 뿐인데, 그 조차 세대가 오래되었고 판각이 많아 오류가 있다. 그 때문에 바로잡는다.”(露堂先生葺詔後學之書, 獨賴此編之存, 而世遠板多有

訛誤，故攷正.)라 하고 秋世文의 序文에는 “潤賴此篇之尙存，故遇信料式，久愈深高。凡此十九篇，片言隻字，無非正修齊治之提綱聚維，而公之所罵修燈根者，千教不打，非是書而何?”라 하여 19편이 전체인 줄 알았으며, 같은 고향인 달성 서찬규(徐贊奎, 1825-1905)은 아예 《천선제명록闡先題名錄》에서 “余嘗愛露堂秋文獻公明心寶鑑，其爲書蓋蒐輯前修格言，而蓋公平生眷眷服行之餘”라 하여 추적의 편찬에 전혀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음.

○그 뒤 《東賢號錄》，《朝鮮歷代名臣錄》，《東國文獻備考》，《潭陽邑誌》 등에도 모두 《명심보감》은 추적이 지은 것으로 잘못 전해짐.

○1971년 12월에 경북 달성군 서면 본리동의 仁興書院의 대들보 위에서 이 책이 목판본으로 발견되면서 세상에는 추씨설로 완전히 굳어짐.

○그 후 번역본마다 모두 추적의 편찬이라고 못을 박았고, 어떤 본에는 초상까지 실기도 했으며, 또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조차 추적의 작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해 놓기도 함. 그러나 서문(1393년)과 간기(1454년)로 오류가 확실함.

○뒤에 《명심보감》을 서산대사의 《仙家龜鑑》，《儒家龜鑑》등에도 같은 구절이 있다 하여 서산대사가 지었다고 박사논문이 나오기도 하는 등 오류가 심함.

○현재 시중의 수많은 《明心寶鑑》에는 ‘秋適저’로 한 것과, ‘범립본의 원책을 추적이 정리하고 줄였을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음.

<3> 해외에서의 《명심보감》

1. 중국

○한 때 널리 퍼졌었으나 失傳: 이유는 고명한 학자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음즐록(陰鷲錄)》，《공과격(功果格)》，《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등의 통속서라 여김.

○《명실록(明實錄)》(1587, 10, 辛酉)의 복건통사 임문영(林文英)의 <소진오사(疎陳五事)>라는 상소문에 “副以老儒，責令誦習大誥及明心寶鑑等書，則人心明而邪說破矣” 白蓮敎의 사교(邪教)에 대항할 수 있는 책이라 여겼음.

○韓流로 인해 <大長今> 연속극에 《명심보감》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찾으려 애썼으며 북경대 교수가 찾았다고 연락하여 본인이 입수함. 그러나 잊혀진 《명심보감》이 《현문》인 줄 착각. 淸 道光 19년(1839) 郁文堂에서 표지를 《明心寶鑑》이라 하여 간행된 것으로 속 내용은 《賢文》이라는 책의 원

문이었음.

○臺灣에는 대만국립도서관에 월남판 《明心寶鑑》이 소장되어 있으나 《太上感應篇》과 佛教와 儒敎의 내용을 섞어 《明心寶鑑》(附 《三聖經》)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음.

2. 일본

(1) 무로마치(室町)시대 오산승(五山僧)이 홍무 연간 지금의 강소 태창에서 들어갔을 때 입수한 것

(2) 임진왜란 때 조선을 통해 청주본을 강제 약탈해간 판본.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군대의 무력에 의해 도자기, 활자 등과 함께 건너가 그가 사망한 뒤 도쿠가와(徳川家康, 1542-1616)에게 넘어가 이것이 어삼가(御三家, 尾張, 紀伊, 水戸) 세 집안에 분산 소장되었다가 그 중 미토(水戸) 집안에 내려오던 것이 지금 츠쿠바(筑波) 대학 도서관에 ‘양안원서(養安院書)’라는 소장인이 찍힌 채 전해져 오고 있음.

(3) 특히 일본은 그 뒤 에도(江戸) 시대에는 여러 차례 이 책을 출간하였고, 당시 유명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이 책을 애지중지하였으며,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여겨 이를 자신들의 글에 인용하였음.

(4) 이에 따라 일본은 자체 간행한 화각본(和刻本, 寛永 8년, 1631)을 비롯해 <명각본(明刊本)>, <청주본(淸州本)>, <청간본(淸刊本)>, <초략본(抄略本)>, <증보본(增補本)> 등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및 영향력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더한 정도임. <청주본>의 유일한 완전본(完整本)은 츠쿠바대학 소장본 하나밖에 없음.

3. 월남

○명(明) 만력(萬曆 2년(1574) 기록에 《明心寶鑑》이 언급되어 있음.

○지금 남아 있는 판본으로는 《Minh Tam Buu Giam(明心寶鑑)》(越南新德出版社)이 대만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그 외 《明心寶鑑釋義》(1957)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책은 특히 이듬해(1958) 우리나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했을 때 기증되기도 하였음.

○《명심보감(Minh Tam Bao Giam)》은 월남 한월음(漢越音)과 월남음(越南音)을 매 한자마다 표기하고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써 1998년에 출간함.

4. 스페인 및 서구

○《명심보감》은 한문으로 기록된 동양서적 중에 최초로 서구에 번역 소개된 책이라는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

○1592(혹, 1595)년 임란 중에 번역된 것과 176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스페인 선교사 코보(Cobo)의 작업.

○그는 에스파니아 트레드 출신으로 멕시코에 첫 선교지로 파견되었으나 그곳 총독과의 알력으로 1565년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옮겨 화교들과 접촉, 중국어와 한자와 한문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학습할 수 있었음. 다시 1592년 일본의 사츠마(薩摩)에 상륙, 마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1개월 뒤였으며 조선침략의 본부가 있던 나고야에서 환대를 받으며 필리핀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일본과 필리핀의 우호협정 임무를 부여받음. 이때에 히데요시가 자랑삼아 보여준 <청주본>을 근거로 스페인어의 “맑고 정결한 마음의 보배로운 거울이 되는 책”(Libro del Espejo Preco Clarory Limpio Corazon)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완성, “이교도가 편찬한 책이지만 우리들의 성서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논지를 펴며 동양인의 높은 도덕관, 윤리관부터 이해해야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음.

○1595년 12월 23일 중국 선교의 동행자이며 코보 자신의 친구 베나비데스(Benavides) 신부에 의해 스페인에 전달되어 당시 황태자에게 헌상되었으며, 중국 남방(福建) 발음에 의해 《Beng Sim Po Cam》이라 함.

○이것이 335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929년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Paul Pellot, 1878-1945)에 의해 알려지게 된 것이며, 특히 코보의 원고는 우리나라 ‘청주본(淸州本)’이 편자의 이름인 줄 잘못 알았음.

(2) 도미니크 수도회 선교사 나바레테(Domingo Fernandez Navarrete, 1616-1689)에 의한 번역.

○중국 복안(福安)이라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676년 《明心寶鑑》번역에 착수.

○그는 서문에서 “중국에서 만난 최초의 서적으로 간결명료하여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이교도 중국인에게 카톨릭 신자의 성스러운 캄피스(Kempis)와 같은 것”이라 하였고, 《Ming Sin Pao Kien》이라 함.

○그리하여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카테나 아우레아」(Catena Aurea)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학자들의 어록을 많이 인용했듯이 이 책의 저자도 덕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긴 중국 자신들 현인들의 말

을 모은 것”이라 함.

○이 나바레데의 《明心寶鑑》은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1646-1716), 프랑스의 케네(1694-1774), 프랑스 문학가 보르테르(1694-1778) 등 유럽의 사상가들에게 읽혀져 널리 퍼졌으며 1704년 영어로 번역, 1863년에는 민현대 요한 하인리히 플래트(Johann Heinrich Plath. 1800-1874)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 1958년 12월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마드리드 도서관에서 “동방과 서방”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2종류의 《明心寶鑑》이 전시되었으며, 아울러 코보의 고향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대대적 행사를 갖기도 함.

<4> 《명심보감(明心寶鑑)》의 명언들

- 007 「恩義廣施，人生何處不相逢？ 讐冤莫結，路逢狹處難迴避。」
- 010 「禍福無門，唯人自召。 善惡之報，如影隨形。」
- 012 諸葛武侯曰：「謀事在人，成事在天。」
- 017 「種瓜得瓜，種豆得豆；天網恢恢，疎而不漏。」
- 019 「時來風送滕王閣，運退雷轟薦福碑。」
- 020 「父兮生我，母兮鞠我。 哀哀父母，生我劬勞。 欲報深恩，昊天罔極。」
- 024 「大丈夫當容人，無爲人所容。」
- 033 「良藥苦於口而利於病，忠言逆於耳而利於行。」
- 037 「將上不足，比下有餘。」
- 042 「以己之心，度人之心。」
- 043 「施恩勿求報，與人勿追悔。」
- 044 「懼法朝朝樂，欺公日日憂。」
- 048 「兒孫自有兒孫福，莫爲兒孫作馬牛。」
- 050 「生事事生，省事事省。」
- 034 「賢師良友在其側，詩書禮樂陳其前，棄而爲不善者，鮮矣。」
- 075 「巧者，拙之奴；苦者，樂之母。」
- 080 「曲突徙薪無恩澤，焦頭爛額爲上客。」
- 081 「天不生無祿之人，地不長無用之草。」
- 084 「水至清則無魚，人至察則無徒。」
- 085 「人無遠慮，必有近憂。」
- 091 「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
- 097 「遠水不救近火，遠親不如近隣。」
- 099 「良田萬頃，不如薄藝隨身。」

101 「有意種花花不開，等閑插柳柳成蔭。」

108 「子孝雙親樂，家和萬事成。」

112 「無不敬。」

122 「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

<5>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채근담(菜根譚)》

- 1970년대 일본 最高의 經營書-

《明心寶鑑》	《菜根譚》
(明)范立本	(明) 洪自誠(應明)
儒家的	道家的
함께 사는 법	홀로 사는 법
他人의 말을 모음	自身의 말을 모음
社會的 義務 重視	個人 哲學 啓發
陽의 積極성	陰의 積極성
力行을 주장	無爲를 주장
主動的	主靜的
集團을 重視	個別을 重視
人本主意觀	萬物一齊觀
自強을 귀히 여김	謙弱을 귀히 여김
人事를 중요시함	任天을 중시함
節序에 順應	放任을 認定
階級을 중시(從)	平等을 중시(橫)
節性(勉強)을 주장함	自然(天然)을 아름답게 봄
天命을 두려워함	任天을 즐김
自強不息	物我兩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세상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세상을 소유하지 말고 향유하며 스스로 天理를 터득하여 고통과 행복의 多體的 遍在를 인정하라.”

IV. 結言

“개천에서 용은 나는가?”

※ 참고(1)

<중국 역사 흐름>

○上古→夏→殷(商)→周(西周, 東周: 春秋, 戰國)→秦→漢(西漢, [新], 東漢)→三國(魏, 蜀, 吳)→晉(西晉, [五胡十六國], 東晉)→南北朝(南: 宋→齊→梁→陳. 北: 北魏→東魏, 西魏→北齊, 北周)→隋→唐→五代(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

→宋(北宋, 南宋: 遼, 金)→元→明→清→民國→現代

※참고(2)

<청년기에 꼭 읽어야 할 동양 고전>

1. 『十八史略』(7권) 원 증선지(찬): 상고시대부터 원나라까지의 역사
2. 『史記』(열전) 한 사마천(저): 고대부터 한나라까지 역사, 문화, 철학
3. 『論語』 공자 제자들: 공자 어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훌륭한 문구
4. 『顏氏家訓』 북주 안지추(저): 가훈의 최고서. 자녀 교육과 인생 철리들
5. 『貞觀政要』 당 이궁(저): 당 태종 정관연간의 이야기. 제왕의 세계관
6. 『韓詩外傳』 한, 한영(찬): 고사집과 시경의 연결. 일상생활의 지혜
7. 『晏子春秋』: 춘추 시대 안영의 일화와 행적. 긍정의 힘과 유모어
8. 『蒙求』: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속의 모든 고사.
9. 『明心寶鑑』 명 범립본(편): 우리 조상의 필독서, 명언명구의 집합체
10. 『菜根譚』 명 홍응명: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최고의 수양서
11. 『唐詩三百首』 청 형당퇴사: 중국 시 한 수쯤은 외워야
12. 『陶淵明集』 동진 도연명: 우리 정서에 가장 맞는 중국 문학.
13. 『老子』(도덕경) 李耳: 결여의 도.
14. 『莊子』 莊周: 우연과 도가 철학의 정수
15. 『韓非子』 韓非: 君主論 및 법치만능주의의 완결편

※ 『東洋思想百選』 <簡明圖書目錄>

- (1)《論語》(4) (2)《孟子》(4) (3)《中庸》(1) (4)《大學》(1) (5)《孝經》(1)
- (6)《國語》(3) (7)《戰國策》(4) (8)《史記列傳》(4) (9)《十八史略》(7)
- (10)《貞觀政要》(2) (11)《西京雜記》(1) (12)《洛陽伽藍記》(1) (13)《說苑》(5)
- (14)《新序》(2) (15)《韓詩外傳》(3) (16)《孔子家語》(3) (17)《潛夫論》(2)
- (18)《顏氏家訓》(2) (19)《老子》(1) (20)《莊子》(2) (21)《列子》(1)
- (22)《晏子春秋》(2) (23)《列女傳》(2) (24)《神仙傳》(1) (25)《孫子》(1)
- (26)《吳子》(1) (27)《尉繚子》(1) (28)《司馬法》(1) (29)《六韜》(1)
- (30)《三略》(1) (31)《李衛公問對》(1) (32)《三十六計》(1) (33)《小學》(3)
- (34)《千字文》(1) (35)《三字經》(1) (36)《百家姓》(3) (37)《蒙求》(5)
- (38)《幼學瓊林》(3) (39)《昔時賢文》(1) (40)《明心寶鑑》(2) (41)《菜根譚》(2) (42)
- 《格言聯璧》(2) (43)《唐詩三百首》(3) (44)《千家詩》(2) (45)《唐才子傳》(3) (46)《陶淵明集》(2)
- (47)《詩品》(1) (48)《世說新語》(4) (49)《搜神記》(3)
- (50)《博物志》(1) (51)《山海經》(3) (52)《鄧析子》(1) (53)《尹文子》(1)
- (54)《公孫龍子》(1) (55)《慎子》(1) (56)《人物志》(1) (57)《書譜》(1)
- (58)《二十四孝》(1) (59)《新語》(1) (60)《申鑑》(1) (61)《列仙傳》(1)
- (62)《帝鑑圖說》(1) (63)《春秋左傳》(6) (64)《韓非子》(5) (65)《商君書》(1)

(66)《文中子》(2) (67)《吳越春秋》(2) (68)《越絕書》(2) (69)《天工開物》(2) (70)《尚書》(3) (71)《高士傳》(2) (72)《古文眞寶》(5) (73)《春秋繁露》
 (74)《大戴禮記》 (75)《詩經》 (76)《周易》 (77)《呂氏春秋》 (78)《新書》
 (79)《文子》 (80)《淮南子》 ……

★林東錫(慶北 榮州生. 忠北 丹陽 德尙골에서 성장,

○ 단양초중, 경동고, 서울교대, 국제대, 건국대대학원 졸업.

○ 雨田 辛鎬烈 선생에게 한학 受學.

○ 국립대만사범대대학원 臺灣 國家博士(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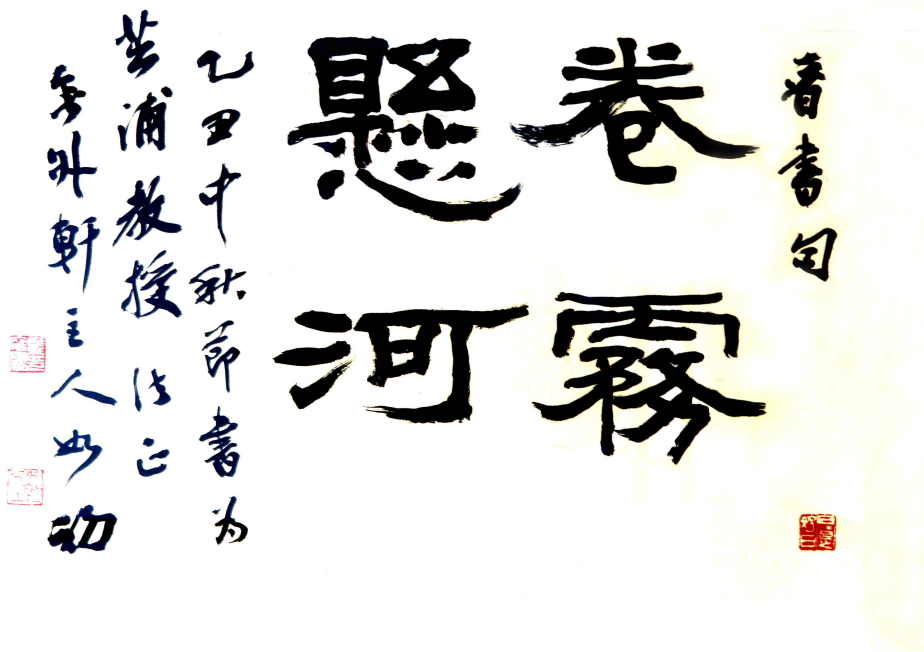
○ 『中國古典100選』(총 200여권) 저술. 계속 집필중

○ 010-4452-3324. dslim@konkuk.ac.kr

○ 네이버→카페→청구서당

○ 건국대교수. 현 건국대 명예교수

○ 건국대교무처장, 문과대학장.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외대 대학원 강의. 한국중어중문학회회장. 한국중국어언어학회회장. 중국어문학연구회회장. 제2외국어활성화추진위원회상임대표. 한중번역연구회 부회장. 중한문헌번역연구소 소장. HSK 한국 실시위원장. 현 靑丘書堂 훈장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
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
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己丑小亭錄孟子告子章句

